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 예배 후에 선교사파송 후원순서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 지역별 사랑방 방모임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 어린이학교 반별여행이 27일(화)부터 2박 3일간 서울, 동두천, 대전 과 평창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재훈 목사 · 장영미(생일) 전도사 가정
박광희 목사 · 이근자 사모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정흠 청년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34 호

2024년 8월 2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다가 잠시 멧쟁이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새 갓난아기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사진을 보는데 거기에 의아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적혈구 수치 UP, 백혈구 수치↓, 비장 크기↓, 되기를 기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보니 아기의 팔에 수혈을 받고 있는 빨간 링거줄이 보이고 하얀 병원 시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수혈이라니... 너무나 놀란 마음에 카톡을 보냈고 A4용지 세 장에 걸친 기도편지를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편지를 단숨에 읽고 바로 출력하여 식탁 옆 벽에 붙여놓고 온 식구들과 공유하여 생각 날 때 마다 기도하기로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시 본 기도편지의 커다란 마지막 문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영적전쟁에 기도의 무기로 함께 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와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순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2:1>

바울사도는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갖춰야 할 것들을 나열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18>

영적싸움의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뛰어 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심지어 위 말씀에서처럼 받은 명령이 있기도 합니다.

이토록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하는 것은 아마도 이 기도가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다른 사람들, 나아가 세계와 온 인류를 품고 기도하는 참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무기로 함께 싸워주시는 당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해주십시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
<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430 406 310 / 586

기도 : 하경임 집사

성경 : 예레미야서 24:1-10

제목 :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1.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What)
 - 1)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보여주셨다.<1a>
 - 2)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다른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이다<1b-3>
 - 3) 좋은 무화과는 포로의 회복, 나쁜 무화과는 이집트파의 저주<4-10>
2. 하나님은 공의(公義)로 역사를 다스리신다 (Why)
 - 1)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주님께서 나에게” 3회. “내가” 15회)
 - 2) 하나님은 공의로 역사를 다스리신다.(공의는 믿음 안에서의 정의)
 - 3)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계시하신다.(역사는 일반계시 중의 하나)
3. 역사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자 (How)
 - 1)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고백하자.(모든 예언서의 큰 줄기)
 - 2) 전쟁,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본문의 중심 메시지)
 - 3) 역사는 일반계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우자.

여름에 만난 사람들

몸과 마음이 쉬기를 원할 즈음은 언제나 방학이 온다. 바뀌서 말하면 방학을 맞을 때 즈음은 해소되지 못한 무언가가 켜켜이 쌓여 있음을 느낀다. 이 얼마나 절묘한 휴식인가. 감사하기 그지없다. 방학을 한 바로 다음 날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88세이신 우리 아빠는 언제나 나를 마중 나온다. 기차를 타면 기차역에, 비행기를 타면 공항으로 나와 내 짐을 받아 드신다. 그랬던 아빠가 이번엔 바깥 풍경에 빠져 있는 내게 전화를 하셔서 도착 시간을 묻고 또 묻는다. 처음 묻는 사람처럼. 이제는 정신이 많지 않으시다. 엄마의 만류로 처음으로 아빠 없이 친정에 들어가며 몽글몽글 눈물이 자꾸 났다.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감이 왔다.

올라오는 길에 대구에 들러서 친구들을 만났다. 깃털머리 6층사가 이제는 넷만 남았다. 영순이란 친구는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고 곧 목사 사위를 본단다. 정숙이라는 친구는 얼마 전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축하해 주었다. 은숙이는 모태신앙인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점희는 우상에 빠져 사는데 하룻밤을 점희 집에서 잘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모양이 다 다른 이 친구들은 멀리에서 온 나를 얼마나 반겨 주고 챙겨 주는지 고마울 따름이다.

또 기차를 타고 오다가 대전에 내렸다. 대전에서도 시차를 두고 두 사람을 만났다. 먼저 만난 사람은 신앙이 깊은 분이려 이런저런 얘기가 다 좋았고 나중 만난 친구는 완전 만만한 정애라는 중학교 친구네 남편과도 잘 알려져 그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내가 왔다고 휴가까지 내고 퇴근을 해서 감동 먹었다. 평상시 맨발 걸기를 한다며 나를 데리고 걸었고, 내 트렁크에 좋은 옷을 잔뜩 넣어 주어서 잘 입고 있다.

그리고 여름공동체가 시작되었다. 교회에서는 매일 대여섯 명씩 이렇게 저렇게 그룹을 지어 말씀을 나누었고, 숙소에서는 새벽이 될 때까지 깊은 얘기들을 나눈 사랑방 사람들을 만났다. 깊은 은혜였다.

그 후로 아침에 교회에 나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기도를 드렸다. 켜켜이 있던 묵은 덩어리들을 포슬포슬하고 간지러울 만큼 부드러워진 것으로 바꾸어 준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다 돌려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탁드렸다.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 후 뽕송해진 마음으로 공동체 발으로 가서 맨발로 받을 걸었다. 또 정 많은 한 사람을 거기서도 만났다. “좋은 휴일께 얼마든지 걸어도 되야. 갈 때 거시기 깃털도 좀 따서 가~” 새싹사랑방 하경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2학기 개학을 했습니다. 모두 여름 별에 그을려 피부는 구릿빛이 되었고 키도 쭉욱 자랐습니다. 반가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서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고 금세 어울려 놀았습니다.

개학을 한 오늘은 어떤 마음인지, 방학 동안의 마음은 어땠는지 '안녕카드'(감정을 표현하고 대화와 공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32장의 그림카드)를 각자 골라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룩이는 개학하니 기분이 땡 뚫리는 것 같으며 표현과 꼭 일치하는 그림을 골라서 모두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선택한 그림도 각자 본인이 보기에 시원하고 따뜻하고 고요하고 화사한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하는 꾸러기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방학동안 지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행이나 나들이를 다녀온 사진이나 평범한 일상 속 즐거운 추억이 담긴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이야기도 들려주는 시간이지요. 다들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먹고 가끔 다투지만 금세 화해도 하고 그렇게 함께 살고 자라는 꾸러기학교가 참 좋고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2학기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지난 목요일 아침, 아브라함장막 동그라미가 어린이들의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방학동안 키가 커서 온 친구, 피부가 까맣게 타서 온 친구,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온 친구, 다이어트를 해 날씬해져서 온 친구,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오랜만에 만나니 모두 반갑고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드디어 반별모임 시간! 방학동안 지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방학 숙제를 확인합니다.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한 친구도 있고, 대충 할 수 있는 것만 해 온 한 친구도 있고, 열심히 놀다가만 온 친

구도 있습니다. 다음주면 방학과제상을 받을 친구들이 갈무리 되겠지만 일단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2학기 어린이학교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어린이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2학기의 새 임원으로 회장에 김민지, 총무에 정아영, 서기에 박윤아 어린이가 당선되었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이제 이번주에는 반별여행을 떠납니다. 서울, 동두천, 대전, 평창과 강릉으로 흩어져서 떠나는 여행 위에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지리산 종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져, 작년보다 한 주간 빠르게 출발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태풍을 만나, 하루만에 하산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의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 기간에서도 일기 예보에서는 야속하게도 비 소식이 잡혔습니다. 그것도 태풍의 영향이 있는 비였습니다. 그런 불안을 품고 떠난 발걸음은 첫 날의 화창한 햇빛에 씻겨지는 것 같았지만, 이윽고 더위와 물 품귀현상을 겪기 시작하면서 느려지기 시작한 멋쟁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멋쟁이들이 힘들어서 늦어지는 멋쟁이들을 위해, 산 속을 뛰어다니며 물을 날라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몸을 지탱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 멋쟁이들이 대피소에 늦게 도착할 때마다 먼저 와있던 멋쟁이들이 환호성을 울리며 반갑게 환대해주었습니다. 둘째날은 점심 이후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이윽고 밤새 천둥번개를 동반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기어코 하산 명령이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아침 하산을 하고 있자니, 멋쟁이들이 하산을 하고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산통제가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아쉬움을 품고서(또는 기쁨을 품고서), 멋쟁이들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모듬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피드백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일, 극한의 상태에 다다를 때에, 멋쟁이들에게선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함께 힘내는 모습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힘겨움과 아쉬움이 있었던 여행이었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고 또 기쁨과 보람도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자아를 찾아가는 중2의 교사

교사로서 지내며 꾸준히 나이를 먹다보니 세대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해가며(또는 만들며) 지내지만, 동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곤 했습니다. 더욱이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찾아온 다른 세대의 학생들과 얼마나 마주할 수 있을지, 자아형성과 탐색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고민도 깊어집니다. 보통 사춘기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15살 중2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중2병이란 단어도 매우 익숙하게 쓰이고 있지요(물론 당사자들은 싫어합니다만). 이 때의 학생들과 함께 매년 읽으며 자신의 말로 바꿔보는 시가 있습니다. 자아는 세대차이와 나이를 묻지 않고,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한 시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면상 구성이 좀 형클어진 것은 양해해주세요/

나 / 김광규

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의 아버지고 나의 형의 동생이고 나의 동생의 형이고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나의 누이의 오빠고 나의 아저씨의 조카고 나의 조카의 아저씨고 나의 선생의 제자고 나의 나라의 남세자고 나의 마을의 예비군이고 나의 아들의 친구고 나의 적의 적이고 나의 의사의 환자고 나의 단골술집의 손님이고 나의 개의 주인이고 나의 집의 가정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동생이고 형이고 남편이고 조카고 아저씨고 제자고 선생이고 남세자고 예비군이고 친구고 적이고 환자가 손님이고 주인이고 가장이지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다.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365장, 397장, 419장
성경 : 시편 16 : 7-11
말씀 : 주님이 함께하시니 참 감사하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북한 선교, 탈북민 >
탈북민들이 무사히 탈출하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위해.
특히,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1) 한국공동체협의회가 한국에 있는 공동체들의 연합을 위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다양한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 운동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해
1) 하반기 공동생활도 은혜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2) 수술 후 회복하시는 분, 수술을 앞두고신 분들 몸이 아프신 지체들을 위해.
3) 지리산에 있는 멧쟁이들이 무사히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지리산에 올라간 멧쟁이들과 꾸러기, 어린이학교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태풍 종다리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때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하산을 한 멧쟁이들에게 차량지원을 해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공동식사 준비로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를 하느라 애를 쓰시고, 비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제초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니 본격적인 하반기 생활이 시작된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반기 공동생활도 은혜가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장영미 전도사 >